칼 럼

정 기 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복지국가의 화장실 문화

복지란 많이 가진 개인이나 국가가 이웃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주고 모두가 더불어 편리하게 잘 사는 사회와 국가를 말하며 복지사회가 복지국가를 만든다. 그 나라 문화 수준을 보려면 음식을 만들어 먹는 부엌의 식탁 문화와 쓰레기가 처리되는 화장실 문화에서 엿볼 수 있다.

음식을 만드는 식당과 위생적인 음식 만들기 식탁 문화는 선진국의 자랑이며 쓰레기와 쓰레기장의 위생적 관리와 화장실의 위생적 시설과 편리한 복지 이용은 선진국 문화의 꽃이다. 지금도 조리대와 식탁이 없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수저와 젓가락 사용을 않고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며 화장실에 갈 때 화장지를 사용 않고 컵에 물을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후진국 문화가 있다.

우리나라 화장실은 대변을 보고 부엌 재로 덮어 버리는 원시적 칙간(측간) 화장실에서 항아리나 시멘트로 만든 구덩이에 인분이 쌓이게 하여 처리하는 수거식 화장실로 바뀌었고 상수도 시설이 되면서 수세식 화장실 문화로 발전되었으며 화장실에는 기본적으로 거울과 화장지 세수 시설이 있다. 그러나 복지를 외면하고 화장실 문을 잠가 화장실을 이용하러 찾은 고객이 문이 잠긴 화장실 앞에 용변을 보는 부끄러운 화장실 문화가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삼만 불 시대에 들어섰으며 그에 따른 국민의 주거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변화 발전 개선되었다.

주거 환경에서 주택이 아파트 구조로 바뀌면서 음식을 만드는 부엌의 구조가 입식 부엌으로 바뀌었으며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에 좌변기가 설치된 화장실로 되었으며 비데가 설치된 좌변기도 있다. 이러한 주거 환경 변화는 농촌 시골의 단독 주택도 실내 주거 편의 시설이 입식 부엌 수도 시설을 갖추었고 화장실도 양변기나 좌변기가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다.

학교는 현대식 위생적 급식시설을 갖추고 학교 급식을 시행하며 화장실은 가정환경에 발맞춰 수세식 화장실에 양변기나 좌변기가 설치되어 활용한다. 화장실은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며 소독을 해야 하고 화장지는 비치되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화장실 문화에서 서로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화장지 비치를 안 하고 사용자가 휴대하도록 하는 화장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모처럼 사용하는 휴게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난감한 적이 있는데 휴게소 관리 책임자는 복지 차원에서 화장실 청소를 잘하고 화장실에 반드시 화장지를 비치해 복지국가 복지 공공시설의 화장실이 되게 해야 한다. 길거리에도 개방된 화장실을 설치하고 안내 표시가 있어 행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지방 자치화 시대가 되고 복지국가로 발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선진국 풍경이며 화장실 문화 변화에 만족감을 느낀다.

우리나라 철도 문화는 고속철도가 되고 객차의 내부 시설이 선진국 수준으로 잘 되었으며 객차의 화장실은 화장지 비치가 잘되어 자랑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이다. 복지 시설은 지역인과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국민이 애용하고 아껴 쓰는 시설이 되어야 하며 사용하는 국민은 주인 정신을 발휘해 봉사심으로 시설 유지 청소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공원이나 개방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자기의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 생각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는 선진국 시민 정신이 정착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의 복지 화장실은 내부 시설이 선진국 수준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유지관리 청소가 잘되어 있어야 하며 화장지는 항상 비치되도록 관리 책임자를 두어 운영해야 한다.

선진국 국민이 활용하는 좌변기 화장실의 좌변기는 특히 청결 유지 관리를 사용자가 양심적으로 잘해서 다음 사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어져야 한다. 화장실에 열쇠 장치를 하고 방문자가 활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복지사회에 역행하는 상가의 풍경은 사라져야 하며 복지국가의 복지상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화장실에 갔을 때 열쇠가 잠긴 화장실 앞에서 다급한 용변을 보는 풍경은 사라져야 한다. 복지국가의 복지 화장실은 항상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고 베푸는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이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화장실에 문을 잠글 것이 아니라 좋은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것을 자랑하는 복지국가 복지 시민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화장실이 변화 발전해야 자랑스러운 선진국이 된다. 지방자치가 되고 민선으로 선출되는 단체장은 복지 지방자치의 비전 있는 화장실 문화에 대한 대안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시행해야 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양보와 배려로"

어느덧 계절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절정기를 지나서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소만도 지나고 씨뿌리기에 적당하다는 망종이 다가온다.

이처럼 농촌에서는 한해 농사 준비를 위해 일손이 더더욱 바빠지면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급증으로 도로운행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최근5년간(2014~2018)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총6,981건 발생 하여 6,495명의 인명피해(사망 492명, 부상 6,003명)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원인 으로는 운전부주의가 전체 5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음주, 과속 등 안전수칙불이행이 21%, 정비 불량 9% 순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종류로는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트랙터 14%, 예초기 9% 등이 뒤를 이었으며 연령대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라 이용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사고의 67%를 차지했다.

옛말에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 이라는 뜻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써 천하의 근본인 농부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우리의 식탁 먹거리 또한 더 이상 풍요롭고 안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농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만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며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 또한 농기계 운전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 이야말로 우리 국민모두가 안전해지는 생활을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

고효석 / 무안소방서 해제119안전센터 소방장

社 說

여전히 불안한 등교 수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코로나19는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쿠팡 물류센터까지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여기에다 1일에는 종교단체 집단 감염까지 또 시작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5명이며, 이 중 지역 발생이 30명이다. 그런데 지역사회 신규 감염 사례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했다. 신규 감염자의 80%가 종교모임과 관련된 셈이다.

이 와중에 각급 학교의 등교개학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1차로 고교 3학년생들이 등교한 데 이어, 27일에는 2차로 고2 · 중3 · 초1~2 · 유치원생이 학교에 갔다. 오는 3일에는 3차로 고1 · 중2 · 초3~4, 8일에는 마지막으로 중1과 초 5~6학년생이 등교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 중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들은 다시 교문을 닫았다. 학원에서도 강사와 수강생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현재 전국 838개 학교가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 재유행 여부를 가를 고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둘러 차단하지 않으면 수습이 불가능해질 위험에 처했다. 이처럼 불안 요인이 곳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정대로 순차적인 등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등교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지만 학교 특성상 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현장수업만큼은 아니지만 아쉬운 대로 원격수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많은 학생이 체험학습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대학 입시나 취업 준비 부담이 없는 저학년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등교를 강행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학교야말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다. 불가피하게 등교를 해야 한다면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 · 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 스 (062) 222-5547
회 장·발 행 인·편 집 인 김 평 호
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 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